

예나다운 중독성... 애교 폭격기 시동



최예나, 미니앨범 '러브 캐처'로 컴백 타이틀 '캐치 캐치' 통통 튀는 매력 정형돈·한로로 등 참여도 기대감

“국방일보 최고예요~. ♥”

다섯 번째 미니앨범 '러브 캐처(LOVE CATCHER)'로 컴백한 가수 최예나가 국방일보 독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친필사인을 보내왔다. 최예나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서 '러브 캐처' 발매 기념 간담회를 하고 새 앨범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매한 미니 4집 '블루밍 윙스(Blooming Wings)' 이후 8개월 만의 컴백이다.

'러브 캐처'는 봄바람처럼 다가온 사랑의 순간을 다양한 감정과 색깔로 풀어낸 앨범이다. 앨범마다 자신만의 색깔을 선명히 드러내 온 최예나의 한층 확장된 음악적 스펙트럼과 새로운 매력을 담았다.

타이틀곡 '캐치 캐치'는 일렉트로팝 사운드 위에 '쫓고 쫓기는' 관계의 긴장감을 경쾌하게 녹인 곡이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통통 튀는 에너지가 어우러져 사랑의 밀고 당기기를 최예나 특유의 매력으로 풀어냈다.

최예나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통통 튀면서도 앙큼한 매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포인트 안무는 '애교 폭격기'로 칭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치 캐치'를 듣자마자 몸이 먼저 움직였다. 신나는 후렴구를 살리기 위해 친오빠가 활동한 2세대 혼성그룹 남녀공학의 '빠리뽀 빠리뽀' 같은 느낌을 내고 싶었다”며 “티아라, 오렌지카라멜 선배님들의 영상을 참고했다. 목표는 챌린지 5000개 이상”이라고 웃어 보였다.



◀ 가수 최예나가 11일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서 열린 다섯 번째 미니앨범 '러브 캐처' 기자회견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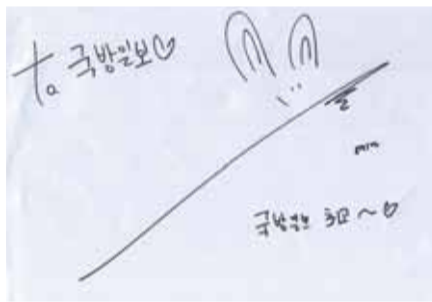
특히 그는 신곡 '캐치 캐치'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에 진출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예나는 “대한민국이 WBC 8강에 진출했는데, 제 노래 제목 '캐치 캐치'처럼 공을 다 잡아 주셨으면 해요. 우리나라의 우승을 기원합니다”라고 응원을 보냈다.

새 앨범에는 여러 아티스트의 참여도 눈에 띈다.

수록곡 '봄이라서'는 '봄이라 설레는 건지, 너 때문에 설레는 건지' 헛갈리는 마음을 유쾌하게 그린 곡으로 단딘과 정형돈이 피처링에 참여했다. 마치 오빠처럼, 삼촌처럼 단딘과 정형돈이 각자의 시선에서 전하는 재치 있는 조언이 듣는 재미를 더했다.

최예나는 “정형돈 삼촌과는 데뷔 후 첫



▶ 미니앨범 '러브 캐처' 커버 이미지.

예능에서 인연을 맺어 연락하던 사이여서 부탁드리게 됐다”며 “앞서 '네모네모' 뮤직비디오에 박명수 선배님이 출연하고, 이번엔 정형돈 삼촌과 협업했으니 다음엔 유재석 선배님과 듀엣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성공한 '무도(무한도전) 키즈'가 될 것”이라고 바람을 전했다.

또한 '스티커'는 이별의 감정을 '스티커'에 빗대 표현한 곡으로 윤마치가 함께했고, 서정적 발라드 '4월의 고양이'는 'Z세대 록스타'로 주목받는 한로로가 작사에 참여했다.

마지막 트랙 '물음표'는 사랑이 시작되기 직전의 미묘한 감정선을 담아낸 곡으로, 섬세한 감성을 지닌 보컬리스트 폴킴과 호흡을 맞춰 곡의 깊이를 더했다.

최예나는 “폴킴의 첫 라이브를 듣는데, 몸이 녹아내릴 지경이었다. 함께 앨범을 작업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느꼈는데, 원래 팬이었던 아티스트와 한다는 자체가 행복했다”고 벽찬 감정을 드러냈다.

어느덧 8년 차 솔로아티스트가 된 최예나는 앞으로도 무대에서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팬이 있어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무대를 놓치지 않고 오래오래하고 싶어요. 2세대 아이돌 선배님들과 합동무대도 갖고 싶고, 서울을 시작으로 아시아투어도 계획돼 있습니다. 기본 좋은 에너지를 팬들께 계속 전달하고 꿈을 펼치면서 제대로 즐기고 싶어요.” 노성수 기자/사진=YH엔터테인먼트

하지원·주지훈, 강렬한 연기로 '안방 복귀'

ENA '클라이맥스'서 부부 역할 호흡 권력·명예 위한 치열한 생존기 주목

배우 주지훈과 하지원이 욕망 가득한 쇼윈도 부부로 시청자를 찾는다.

두 배우는 오는 16일 밤 10시 ENA에서 처음 방송되는 드라마 '클라이맥스'에서 권력과 사랑, 명예와 선택의 경계에 선 인물인 방태섭·추상아 역을 맡아 연기 호흡을 맞춘다.

'클라이맥스'는 영화 '미쓰백'을 연출했던 이지원 감독의 신작이다. 정·재계와 연예계가 교차하는 권력 카르텔을 배경으로, 정상에 서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견제하

는 인물들의 치열한 생존을 그린다.

주지훈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향한 야망으로 권력의 카르텔에 뛰어드는 검사 방태섭을 연기한다. 방태섭은 생존과 선택의 결과를 우선하며 판의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읽고 움직이는 인물이다. 권력의 끝에 올라갈수록 잔혹해지는 선택의 대가를 감내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그의 결말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하지원은 대한민국 톱 여배우이자 권력과 욕망이 얽힌 선택의 중심에 선 인물 추상아로 분한다. 추상아는 한때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톱스타로 화려한 시간을 보냈지만, 연이은 작품의 흥행 실패와 10년 전 살인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리가



드라마 '클라이맥스'에서 방태섭 역을 맡은 배우 주지훈(오른쪽)과 추상아 역의 하지원.

사진=KT스튜디오지니

흔들리는 인물이다. 과연 최고의 자리에 다시 오르기 위해 냉철한 판단과 결연한 의지

를 어떻게 발휘할지 주목된다.

이 감독은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인물을 떠올리며 주지훈 배우의 얼굴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며 “현장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날카로운 이미지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유약함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방태섭 캐릭터의 중요한 얼굴이라고 생각했다”고 신뢰를 드러냈다.

하지원과 관련해서도 “영화 '비광'을 함께 작업하며 매우 프로다운 배우라고 느꼈다. 다시 한번 긴 호흡의 작업을 함께하고 싶었다”며 “그가 보여 줄 추상아의 다양한 얼굴이 배우에게도, 관객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성수 기자